

8월 뇌졸중 환자 발생 연간 2~3위...뇌경색 위험 높아



건강 바로 알기 여름 뇌졸중

정인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전문의

뇌졸중은 주로 겨울철 질환으로 인식된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여름에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 수는 2021년 241만 1632명으로 2020년 200만 7862명보다 40만명 이상 늘어났다. 최근 뇌졸중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자가 증가하며 40대 이하 젊은 층에도 발생이 증가 추세다.

또한 2021년 8월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7만707명으로 환절기인 3월 17만1727명과 9월 15만7367명 다음으로 많았으며, 2016년 또한 8월 환자가 17만842명으로 3월 17만4150명 다음으로 많았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 파열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으로 구분된다. 뇌출혈은 3~4월과 9~11

편마비·감각이상·극심한 두통

시력저하·발음부정확 등 전조증상
1시간 내 병원 도착 처치·치료 중요
오후 실외 활동·과격한 운동 피해야

월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 위험성 높고 뇌경색은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 골든타임은 3~4시간·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는 오전과 오후 기온 변화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혈관 파열(뇌출혈) 가능성이 크고 무더운 여름철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땀을 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액이 끈적해지며 순환이 잘 안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위험이 크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발생 시 바로 병원(또는 응급실)을 찾아 빠른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편마비, 감각이상, 극심한 두통과 시력저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인데 이 경우 지체없이 병원에 가야 한다. 보통 뇌졸중 골든타임은 3~4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병원 도착 후 검사를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실제 그 보다 더 빠른 1시간 내 병원 도착이 중

요하다.

뇌경색은 발생 후 빠른 처치와 치료가 관건이다. 뇌혈관이 막혀도 4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처치를 하게 된다.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져 뇌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치료 받는 것이 좋다. 특히 뇌경색을 치료하는 혈전용해제 사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증상 발현부터 4시간30분이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도 동맥 내 혈전제거술은 상황에 따라 24시간까지 가능해 포기하면 안 된다.

◇충분한 물 섭취와 오후 야외 활동 삼가기=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출혈부위, 원인 출혈량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진다. 출혈량이 적으면 약물 치료가 가능하나 출혈량이 많거나 혈관활성제 사용이상이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반신 불구나 사망위험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뇌세포는 몇 분만 혈액공급이 중단되면 큰 손상을 입는 만큼 최대한 빨리 응급실(병원)을 찾아 CT, MRI, 혈관조영술 등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는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정상인의 4배 이상 높다. 혈관벽이 무너져 혈관 속 지방질과 불순물이 혈관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콜레스테롤 지방질과 찌꺼기 쌓일 수 있어서 뇌졸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폭염 속 여름 뇌졸중

뇌경색

-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 무더운 여름철 다량의 땀 배출로 혈액이 끈적해져 발병 증가

증상

- 얼굴과 사지 마비
- 어눌하고 부정확한 발음

뇌졸중 골든타임 4시간
증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병원 방문

자료제공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다.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치매 등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평소 염분, 당분, 음주량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유지가 예방의 기본이다. 여름철 뇌졸중 위험을 벗어나려면 높은 기온이

혈관에 스트레스를 줘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오후 야외 활동은 삼가고, 과격한 실외 운동은 피해야 하며 1일 2리터 이상의 물 섭취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AI로 심정지 예측...중환자 생존율 높여

흉부CT 자동영상분석 진단보조 솔루션 루카스 도입·운영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이 AI 기반 최신 기술 활용을 위해 흉부CT 자동영상분석 진단보조 솔루션인 루카스(Lu | C AS)를 도입·운영 중이다.

현재 진료에 활용 중인 루카스는 흉부CT 영상에서 결절의 검출과 정량화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식약처 및 국제 표준 허가 받은 국내 최초 최상위 등급을 받아 기술력이 입증된 솔루션이다.

또 인공지능 분석의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이며, Always-on 시스템으로 24시간 대기하며 촬영 즉시 분석을 시작해 판독 초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조선대병원은 AI 진단 솔루션을 통해 중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폐질환(폐기종과 폐동맥색전술)과 심장질환(관상동맥 석회화, 심비대증/대동맥류) 등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 내 심정지는 병원 내 사망 요인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환자 진료에 AI 진단 솔루션을 활용하면 환자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와 함께 연령, 데이터 기록 시점을 복합 분석해 향후 24시간 내 발생할 심정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 의료진의 사전 조치를 도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대병원은 최근 최첨단 Swift MR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Swift MR'은 AI 기술을 접목한 딥러닝 기반의 자기공명영상(MRI) 가속화 솔루션으로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영상품질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실제로 원래 도입한 이후 MRI 검사시간이 20~30분 정도 단축되어 검사를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조선대병원 스마트병원추진단장인 김진웅 의료정보실장(영상의학과과장)은 "AI 기반의 진단 솔루션 활용으로 검사시간 단축은 물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환자가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팀 3D프린팅 임플란트 고관절수술 성과 주목

환자맞춤형 3D프린팅 골대체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관절 재치환술이 장기적으로 인공고관절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2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윤택림·박경순·임재진·박찬진·이찬영 교수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67회 대한고관절학회에서 '3D프린팅 골대체 임플란트를 이용한 효과적인 고관절 재치환술' 결과를 분석·연구한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성공한 윤 교수 연구팀은, 이후 현재까지 30여 명에게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했다.

이번 학회에서 윤 교수 연구팀은 수술 후 6개월부터 3년까지 추적·관찰한 23명의 환자분석



윤택림 교수

결과를 발표, 모든 환자에서 임플란트에 골유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임플란트를 교체하는 재수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인공고관절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 연구팀은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인공고관절은 닳아지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골반 비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위의 골반뼈가 소실될 수 있으며, 대다수 환자는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기능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녹차 성분, 자궁근종 치료·예방에 효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 연구팀

녹차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갈산염-3-에피갈로카테킨(EGCG)이 자궁근종 치료와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궁근종은 자궁벽의 근육층인 평활근에서 발생

하는 양성 종양으로 25~45세 여성에게서 빈발하며 외과적 제거가 치료법이지만 심하면 자궁 전체를 적출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행되면 자궁 출혈, 빈뇨, 통증이 나타나며 불임, 유산을 부를 수도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산부인과 전문의 제임스 세가스 교수 연구팀이 시험관에서 자궁근종 세포를 배양해 EGCG에 노출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칼 라이프 사이언스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는 자궁근종의 관리 또는 예방을 위한 표준 지침이 없으며 자궁근종의 증식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